

밥 먹는 일이 삶과 죽음 가르는 큰 일



이순신 식사대계(食事大計)

이 강산 침노하는 왜적 무리를 거북선 앞세우고 무찌르시어 이 겨레 구원하신 이순신 장군 우리도 씩씩하게 자라납니다.

요즘에야 부르는 아이들이 없을 테지만, 오래전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이 노래를 배워 고무줄놀이를 할 때 많이 불렀다. 이순신 하면 흔히 충무공, 성웅, 23전 23승, 한산대첩, 병랑해전, 노량해전, 노적거리, 강강술래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는 말을 떠올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알뜰히 살피야 할 사료가 《난중일기》다. 한치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전쟁터에서, 백의종군 길에서도, 거르지 않고 답답하게 또는 비통하게, 하찮아 보이는 조그만 일까지도 낱알이 적바라해 남겼다. 우리는 난중일기에서 잘못되어 가는 세태를 보면서 북받쳐 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

- 〈난중일기〉이순신 연구 으뜸 자료
- 조그만 일도 낱알이 기록
-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는
- 뜨거운 의지의 이순신 투영

하고, 험빛은 부하들에게 기꺼이 웃을 벗어 주었으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목 놓아 울고, 진중에서도 병들어 누운 어머니를 떠올리며 가슴앓이를 하고, 때론 다른 장수 욕을 하는 부하들 꾸밈을 들어주고, 오랜 싸움에 지쳐 몸져눕기도 한 사람. 그러나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뜻한 바를 꼭 이루고 마는, 뜨거운 이순신과 만난다.

아들 이순신
아버지 이순신

"일찍 식사를 하고 어머니를 마중하려고 바닷가로 나갔다. ...아직 배가 오는 소식이 없다고 했다... 얼마 뒤 종 순화가 배에서 내려 어머니 부고를 전했다. 뛰쳐나가 가슴을 치고 슬퍼하니 하늘에 뜬 해조차 캄캄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이루 다 적을 수가 없어, 뒷날에 적었다." -정유재란이 터진 정유년(1597) 4월 13일 일기

임진란을 시작으로 6~7년 조선 전토를

유린했지만 오직 이순신에게는 당하기만 하던 일본군은 충남 아산으로 쳐들어와 그 식솔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셋째 아들 면이 맞서 싸우다가 죽는다. 나이 스물한 살.

"...결면에 '통곡(慟哭)' 두 글자가 씌어 있어 아들 면이 적과 싸우다가 죽음을 알고 나도 모르게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울었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어찌다 이처럼 이치에 어긋났는가?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을 잃었구나. 슬프다. 내 아들이! ...너를 따라 죽어서 지하에서 같이 지니고, 같이 울고 싶지만, 네 형, 네 누이, 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아직은 참고 목숨을 이을 수밖에 없구나! 마음은 죽고 겹겹이 남은 채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한 해를 지내는 것 같구나." -정유년 10월 14일 일기.

이순신(李舜臣 1545~1598) 그이는 누구인가? 본관이 덕수(德水), 자는 여해(汝海), 나중에 충무공이란 시호를 받는다. 마른내라고 불렀던 인현동에서 태어나 14살 때 집안이 기울어 외가인 아산으로 내려가서 자랐다. 28살에 무과에 응시를 했는데 말 타다가 떨어져서 부러진 다리에 나무목을 대고 다시 말을 타지만 급제를 하지 못한다. 4년 뒤인 32살 때 무과에 급제하고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종8품)으로 벼슬길에 오른다. 나이 47살 정음현감(종6품)으로 있던 이순신을 서에 류성룡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종3품)로 무려 일곱 단계나 올려 천거한다. 과격! 조정에선 말들이 많았다. "절대 안 된다. 이 무슨 수작이냐?"며 반대가 거셌지만 반대를 무릅쓴 류성룡의 강력한 천거로 전라좌수사가 된다. 전라좌수사가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탈영병과 군령을 흠치는 자들을 엄한 벌로 다스려 기강을 바로 세우기였다. 1년 2개월 뒤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한산대첩에서 승전을 거둔 이순신은 그 이듬해 모든 중심진을 한산도로 옮기고 나서 삼도수군통제사가 된다.

정유년(1597) 이순신 나이 53살 정월, 군공을 날조해서 임금을 기망하고, 적장 가도 기요마사 목을 잘라오라고 조정출항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선조임금 국문을 받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그러나 우의정 정탁의 변호로 간신히 풀려나 백의종군하다가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올라 겨우 남은 13척 배로 왜 대진단과 맞서 크게 이긴다. 명량대첩. 이순신은 이듬해 1598년 마지막 해전, 노량해전에서 전사한다. 선조는 이순신이 백성과 부하들 흠모를 받기에 언제 자신을 떨칠지 모른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마지못해서 선무공신 1 등에 녹훈하고 좌의정에 추증한다. '충무'란 시호는 이순신이 전사한지 47년째 되는 인조 21년(1644)에 내려지고, 또 150여 년이 지난 정조 17년(1793)에야 영의정으로 추증된다. 그 뒤 두 해가 지난 정조 19년(1795)에 《이충무공전서》가 편찬된다. 오랜 세월이 흘러 1959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11년이 지나 《난중일기》 임진 초 〈석관첩〉 곧 이순신 장군이 임진란과 정유재란 그 난리를 7년 동안 거치면서 남겼던 기록들을 국보 제76호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식사대사(食事大死) 생사대사(生死大死)

홀로 사시는 범정스님은 늘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셨다. 때론 끼니때가 번거롭기도 하신지 "식사대사가 생사대사" 또는 "식사대계"란 말을 즐겨 쓰면서 밥 먹는 일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큰일이라며 농담을 하셨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농담으로 알았

- 둔전을 일궈 백성과 군사들
- 먹을 거리 걱정 해소
- 전쟁터에선 죽을 각오로 맞서
- 일본조차 이순신 칭송

다. 그러나 곱씹어 살필수록 그 말씀이 단순한 농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갈겨 따져보지 않더라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점에서 식거나 예수도 비켜갈 수 없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끄는 가정은 누구든지 자기 식솔들을 잘 거두어 먹여야 한다. 기업이나 사회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에 올랐을 때 나라에서 먹을거리, 병선, 무기를 공급해 주지 않았다. 함선도 만들고 무기도 만드는 일, 병사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알아서 해야 했다. 권을 의병장 곽재우 원군이 이끄는 당대 장군들 모두 7년 전쟁을 함께 치렀지만, 백성을 먹여 살리고 전쟁비용을 마련하려고 산업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달랐다. 바닷가 고을을 돌면서 그곳을 수군 전속으로 복속시켜 바닷가에 버려진 땅들을 아주 넓은 둔전(屯田)으로 일궈냈다. 둔전은 백성들에게 입자를 땅을 갈고 일궈서 거둬들이 곡식을 절반은 백성들이 갖게 하고, 나머지는 군대에 바치게 한 제도이다. 게다가 바다에



이순신 장군의 충절을 기려 세운 석전사

서 전복이나 미역을 따고 생선도 잡으며 바다와 육지 산물을 함께 개발해 전쟁 한복판에서 국내외 해상무역에도 나서 무기를 만들고 선박을 건조하며 병사들을 키웠다. 이렇게 1593년부터 3년 5개월 동안 왜적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던 배경에 커다란 농장, 어장, 공작소가 운영되어 돌아간 한산도 통제영, '수국(水國)'이 있었다. 그 덕분에 백성들은 밤잠정을 덜었다. 군사들은 식솔들이 왜적 손아귀에 떨어지게 된다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원군이 1597년 정유년, 칠천량해전에서 그동안 이순신이 일궈놓은 막강한 조선 수군을 완전히 초토화 시킨 뒤에 백의종군을 마치고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에게 남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배 12척뿐, 부서지고 깨진 배 한 척을 수리해 13척 배로 일본 수군 330척을 상대로 명량해협에서 사즉생(死則生) 각오로 일자전으로 맞섰다. 물려섬이 없는 군사력 밀바탕에는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식솔들이 다 죽는다.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식구를 살리고야 말겠다'는 죽을 각오로 두려움과 맞선 병사들이 있었다.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는 "이순신은 당시 조선관료 가운데 유일하리만치 청렴한 인물이었다. 세계 역사에 이순신만한 사람은 없다."고 칭송했다. 역시 일본 역사가 아리모토는 "세상 모든 영웅은 우려려 보이지만 이순신은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며 "기독교인인 내게 이순신은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를 떠올리게 하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나 '긋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지닌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밥 먹는 일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큰 일이기.



변택주(연구소통 소장)

turn'em on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흥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현대불교 현불잡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